

■ 공원 탐방 ① 광주공원

공원은 도시의 허파다. 회색의 삶에 지친 도시민들은 숨 쉴 곳을 찾아 공원으로 모여든다. 공원에 모여드는 것은 사람만이 아니다. 동식물들도 공원에서 평화와 안식을 즐긴다. 때문에 공원은 그 도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는 타임 캡슐이다. 광주 시민들의 애환을 모조리 끌어 안고 시민들과 함께 해온 광주의 공원을 탐방한다.

국밥에 소주 한잔... 서민애환 달래는 도심속 시민 안식처



광주공원 앞 국밥집



목사나 관찰사, 도원수, 어사 등 관료들의 업적을 기리는 비석들



광주공원 뒤쪽에 위치한 정자촌



광주공원 길은 여름철 더운 날씨에도 나무그늘로 선선한 기운이 느껴진다. 광주공원에는 모두 53종 7천108그루의 나무가 있다.

광주공원이 바뀌고 있다. 들머리의 구동체육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빛고를 시민문화관'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취객들의 속을 풀어주던 인근 국밥집들도 내년이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 공원'이 들어선다고 한다. 도심과 공원 사이는 숲으로 연결된다.

지난 1943년 이곳이 공원으로 지정된 지 65년만의 큰 변화다. 도시의 삶에 지친 시민들의 애환을 새벽까지 들으며, 그들의 '고성방'까지도 참아내며 함께 광주를 지켜온 '광주공원'도 이제는 옛말이 되는 것인가.

정말비가 그친 틈에 반짝 날이 갠 지난 10일 오후 광주공원을 찾았다. 내년 초 준공을 앞둔 빛고를시민문화관 공사가 한창이다. 예전의 그 그림던 노인들은 어디로 갔는지, 시민회관으로 오는 계단에서 정담을 나누는 노인 10여 명만 눈에 띈다. 요란하던 '아빠위관'도 없고, 복제테이브 노점에서 들려오는 '뽕짝'마저 시들하다.

아시아 다문화커뮤니티공원으로 변신중

내년이면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 공원에 자리를 내줘야 할 국밥집들의 고민이 남의 일 같지 않다. 수대째 내려온 가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자리를 옮긴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다.

어머니에 이어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황모(55)씨는 "요즘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며 일손을 잡지 못하는 국밥집들이 많다"며 자신도 가업을 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이곳저곳에 노인 복지시설이 많이 생겼고, 최근에는 빛고를노인복지타운이 문을 열어 많이 그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내년엔 시민문화관이 새로 문을 열고 공원 주변도 정비되면 노인뿐 아니라 남녀노소에 사랑받는 공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공원 관리사무소 이수원 계장의 설명이다.

녹음이 울창한 공원 길을 따라 올라가면 광주의 고대와 근현대사의 흔적들과 만날 수 있다. 단연 눈에 띄는 것은 광주서우총서

답이다. 광주를 상징하는 거북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목덜미에 해당되는 지점에 세운 탑이다. 맞은 편엔 1905년 을사조약에 반발해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 삼남일의 순절비, 그곳에서 시신을 위쪽으로 옮기면 이 지역 출신인 용아 박용철의 '나무야 간다'와 영랑 김운식의 '모란이 피기까지는'이 적혀 있는 시비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뒤편 산책길은 정자거리다. 나무 그늘 밑 5~6개의 정자에는 낮잠을 자거나 얘기를 나누는 노인들이 삼삼오오 정겹다. 모두 53종 7천108그루의 나무에서 뿔어져 나오는 피톤치드가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울창한 숲길...광주의 근현대사 흔적

시비 앞에 자리한 김복동(85) 할아버지는 "아코디언을 배우려고 매주 두 번 광주공원 노인복지관에 나온다"며 "선선한 나무 그늘에서 시원한 줄을 끊어보고,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옛날 이야기를 하면 하루가 후딱 간다"고 말했다.

정자거리를 돌아오면 목사나 전라도 관찰사, 군수, 어사, 도원수, 도지사 등을 지낸 옛 관료들의 업적을 기리는 20여 기의 비석이 길손을 맞는다. 공원 안에는 이 밖에도 호국영령 4천406명의 위패가 있는 봉안소와 현충탑, 시민회관과 무진회관, 4·19 문화관 등이 자리하고 있다.

70년대 거의 모든 시민행사가 치러졌고 영화까지 상영했던 시민회관은 이제 소규모 발표회나 기념식 등만이 열리는 잊혀진 공간으로 전락했다.

광주공원은 1943년 일제시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해 광주에 지정된 28개 공원 가운데 하나다. 당시 면적은 13만6천㎡였다. 하지만, 도시가 커지면서 공원은 오히려 줄었다. 지금은 지정 당시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든 4만3천950㎡만이 남아 있다.

국밥과 곶창, 소주 한잔, 그리고 청량한 나무그늘... 변함없는 것 같은 모습으로 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광주공원의 변화가 반갑지만은 않다. 이번 주말 가족과 함께 찾아 추억에 잠겨 보시길 제안한다. 더 변화가 전에.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도시제안

광주도시철도 2호선이 광주 도심과 외곽을 아우르는 '확대순환형'으로 채택됐다. 그러나 전체 42.5km에 이르는 구간을 과연 지상고가로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도로 중앙선에 기둥을 세워 철도가 지나갈 공간을 만드는 방식인 '지상고가'는 도심을 단절하고, 도시경관을 해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백운고가도로'가 그 좋은 예다. 백운고가는 고차 386m에 불과하지만,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 오다 결국 철거될 운명에 처해 있다. 철거 비용도 수백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지상고가 철도를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은 이런 데서 나온다. 차라리 이산화탄소나 매연을 배출하는 자동차의 이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면서 지면을 달리는 경전철, 즉 '노면전철'을 들여오는 것이 어떠한가.

그 모범이 되는 것이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S-

광주도시철도 2호선 지상고가 건설 보다 노면 경전철 어떤가



trasbourg)다. 스트라스부르는 2007년 현재 70만2천412명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로, 노면전차를 도심 교통의 핵심 수단으로 삼고 있다.

지난 1989년 당선된 여성 시장 카트린느 트로트망(Catherine Trautmann)은 스트라스부르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 차세대형 노면전차(LRT) 도입했고, 이는 대기오염의 원인인 자동차를 배척하고 자연환경에 영향이 적은 공공교통의 정비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노면전차 역에는 도심으로 들어오는 자동차를 세워둘 주차장을 만들고 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주차요금을 내면 노면전차와 버스 등 공공교통수단을 하루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도심을 지나는 차량의 수와 매연 및 공해가 현저히 줄어들게 됐다. 현재 모두 5개 노선이 있으며 총연장은 모두 55km이다. /윤현석기자

'도시제안'은 독자 여러분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광주시 도시정책과 관련 제안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chadol@kwangju.co.kr)를 통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Advertisement for '김재규경정학원' (Kim Jaegyu Jeongjeonghakwon) featuring a man speaking into a microphone. Text includes '전설교육의 명문' and '김재규경정학원의 활력 심화는 계속된다!'.

Advertisement for '웹기반 JAVA 개발전문가 교육생모집' (Web-based JAVA Development Specialist Education Student Recruitment) from '중앙 IT 직업전문학교' (Jungyong IT Vocational School). Includes details about course fee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영어회화' (English Conversation) classes. Text includes '영어회화, 꼭 해야 합니다' and '1인당 3만 원'.

Advertisement for '특별채용' (Special Recruitment) by '무등고시회' (Mudeunggosiho). Includes details about the recruitment process and contact information.